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아이스 브레이크(Ice Break)

1. 당신의 가족들(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던 잊지 못할 기억이 있다면 얘기해봅시다?
2. 당신이 꿈꾸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말 · 씹 · 속 · 으 · 로 Into the Word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 일구어진 가정 속에서 건강한 자녀들이 자라가고 가정 가운데 사랑과 신뢰가 끊이지 않는 평안한 가정을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다투게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의 부족한 사랑 때문에 ‘애정결핍’이라는 정서적 장애를 겪게 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에 썩든 불신과 애증은 서로를 반목하게 만들어 모두를 불행한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같이 자녀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건강치 못한 가정을 ‘역기능적인 가정(dysfunctional home)’이라고 말합니다. 역기능적 가정 안에서는 본질적으로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해를 입힌 사람 역시 누군가로부터의 상처받았던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같은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없는 것일까?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의 원형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간 최초의 가정, 즉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가족의 아름다운 원형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반목하였으며 이들이 낳은 자식들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행복한 가정을 구현하려는 노력은 타락한 인간본성에 도전하려는 불가능한 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요한복음 17:21)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처럼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누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가정의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가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공동체... 우리는 이 새로운 가정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Q1)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곡된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해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14~16a)

제 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십시오. 당신들은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십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으며 기쁨에 충만하여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길은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믿는 이들이 늘어났으며 이들 가운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예 충만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아무 조건 없이 나누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진정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교회, 즉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경위입니다. 한 마디로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혈연, 지연, 그리고 학연이 다를지라도 이들이 하나 되지 못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궁극적으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진리의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인간이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로운 가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주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자매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어려움을 함께 하는 가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를 통해 세상이 정화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Q2) 교회를 세우신 이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 가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20~22)

Q3)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1:18a)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27)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고린도전서 12:25)

Q4)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4~6)

Q5) 다음은 신학자들이 제시한 교회의 다섯 가지 기능입니다.

이 기능들이 각각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 ① 예 배 :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것
- ② 봉 사 : (낮은 자 소외된 자)를 향하여 행해지는 것
- ③ 교 제 : (성도)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
- ④ 선교(전도) : (불신 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 ⑤ 가 르 침 : (믿는 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Q6)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가운데 나타난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9~20)

Q7)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성도의 교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4~25)

Q8)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신앙적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1~3)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성 키프리언)



오 · 병 · 이 · 어

Sharing your mind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시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교회란 신앙의 어머니며 요람입니다. 엄마 품을 떠난 갓난아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종종 통탄할 만큼 타락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의미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긍정하든 부정하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상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의 몸에 접붙여진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인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으며 교회를 통해서 각 지체인 성도들 간의 교제와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은 작은 교회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써 새롭게 변화된 주님의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의 꿈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며, 생활 영역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